

호남춤의 맥락에서 본 선입무(儼立舞)의 특징 연구

유영수* 전주대사습청

초록 본 연구는 호남춤의 맥락에서 형성된 선입무의 전승과정과 춤사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입무가 호남춤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떠한 예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전통춤은 지역별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호남춤은 즉흥성과 정형성의 조화, 음양의 대비, 대삼·소삼의 춤사위 활용 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예술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선입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비한 상태로 이 춤이 호남춤의 전통적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어떻게 독자적인 춤사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춤사위 분석을 통해 선입무의 전승 계보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호남춤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선입무는 호남춤의 전통적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춤사위를 형성한 전통춤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삼·소삼의 대비, 맺고 풀기의 원리, 즉흥적 변주가 가능한 구조는 호남춤의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부채 활용과 무대 공간 확장 등의 요소를 통해 현대적 공연 형식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선입무의 전승과정과 춤사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입무가 호남춤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전통춤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학문적 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선입무의 전승이 특정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행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무보화를 통해 전승자들의 춤사위 해석과 전승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호남춤, 선입무, 전통춤, 전승계보

I. 서론

호남이라는 명칭은 ‘호수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전라도 지역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호남은 전라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광역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전라도라는 명칭 역시 전주(全)와 나주(羅)의 앞 글자를 따서 형성되었으며 조선시대부터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으로 명성을 떨쳐왔다(성기숙, 2021). 특히 전라감영과 권번 등의 예술교육 기관이 자리하면서 이 지역의 전통춤은 교방 문화와 민속예술이 결합된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호남 지역은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 풍요로운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춤과 노래가 문화로 정착했으며 이러한 환경은 호남 특유의 즉흥적이고 서정적인 춤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호남 지역의 춤은 일반적으로 대삼과 소삼의 호흡 운용, 정중동(靜中動)의 미학, 즉흥적인 춤사위의 가미 등으로 대표된다. 또한 호남은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매방, 최선, 정자선, 한진옥 등 수많은 명무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각자의 예술 세계를 통해 호남춤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정립하고 전승해 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호남춤의 맥락에서 파생된 선입무를 조명하고자 한다. 선입무는 호남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독자적인 미적 감각과 움직임을 지닌 춤으로 특히 허튼가락 장단에 맞춘 즉흥적인 춤사위, 부채를 활용한 동작, 활달하고 호탕한 기품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 특징적이다(유영수, 2024). 춤사위와 음악적 요소는 전통적인

* 전주대사습청 관장, puri97@hanmail.net

호남춤이 지닌 서정성과 역동성이 결합된 움직임의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선입무가 호남춤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해온 전통춤의 한 갈래임을 의미한다.

전통춤 연구에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춤의 계보와 전승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춤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남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춤의 기원과 전승 계보 춤사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호남 지역 춤의 특성이 규명되어 왔다.

김청우(2021)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여섯 종목의 춤을 대상으로 전승 양상과 춤사위를 분석하여 호남춤의 계보와 특징을 규명하고 타 지역의 민속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민속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민혜미(2013)는 예기무의 전승과정과 춤의 특징을 정리하여 예기무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김미진(2011)은 호남 산조춤의 전승 계보를 체계화하고 그 고유한 특성을 조명함으로써 호남춤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 배혜국(2009)은 전북특별자치도 한량춤의 역사와 전승 계보, 공연 과정을 분석하며 춤사위의 미학적 특징을 밝혀내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춤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지원(2002)은 호남 살풀이춤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최선의 춤사위를 무보화하여 구조적으로 체계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호남 살풀이춤의 예술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개별 춤의 전승 계보와 춤사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호남춤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기반 위에서 선입무가 호남춤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해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호남춤과 선입무의 연관성을 탐구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부각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입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선입무가 비교적 최근에 재구성된 춤이라는 점과 전승 계보 및 춤사위가 명확히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영수(2024)의 연구에서 춤의 구성과 동작, 복식 등을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선입무가 호남춤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더욱이 선입무가 이매방류 승무나 호남 살풀이춤과 같은 다른 호남춤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며 차별화된 미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남춤의 고유한 요소와 선입무의 춤사위 특성을 분석하여 선입무가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학술 논문 및 연구서를 분석하여 호남춤의 특성, 주요 춤사위 등을 고찰하고 선입무의 형성, 호남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입무의 움직임과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기존 호남춤에서 계승한 요소와 새롭게 정립된 요소를 구분함으로써 선입무의 예술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호남춤의 전통적 맥락과 특징

1. 호남춤의 역사적 배경과 전승 맥락

호남춤은 한국 전통춤의 주요한 계보 중 하나로 전라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호남 지역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왔다. 비옥한 평야와 항구 도시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풍요는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판소리, 시조, 기악 등 다양한 전통예술이 지역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며 번성했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는 호남춤이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유희나 향유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은 문화적 표현으로 자리 잡게 했다.

전통춤의 유파는 경기류와 호남류로 나뉘는데 경기류가 서울·경기 지역의 궁중과 기방 중심으로 형성된 한성준

계보라면 호남류는 전라도 권번(券番)을 기반으로 발전한 이대조·이창조·신갑도 계보를 따른다. 특히 경기류가 궁중무용과 기방의 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호남류는 일상적 삶과 민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즉흥성과 자유로움을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술성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성기숙, 2021). 호남춤이 민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즉흥성과 자유로움을 중시한 것은 호남지역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지역민들의 개방적이고 활발한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농경사회에서 음악과 춤은 노동의 피로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호남춤의 즉흥성과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 이어졌다.

호남춤의 형성 과정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와 맞닿아 있다. 이 시기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전주를 비롯해 광주, 순창, 군산, 목포 등지에는 교방이 설치되어 전통예술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방은 관기들에게 음악과 춤을 교육하던 기관으로 민속적 감성과 즉흥성을 강조하는 호남춤의 특성은 이곳에서 형성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교방은 권번으로 전환되었고 전주권번, 정읍권번, 군산 소화권번, 광주권번 등은 판소리, 시조, 기악, 승무, 검무, 살풀이춤 등 다양한 예술을 전수하며 전통춤의 전승을 이어갔다. 광주권번에서는 민속무용이 중점적으로 교육되며 민속적 감성과 즉흥성을 강조한 춤사위를 전수했고 전주권번과 군산 소화권번 등은 판소리, 기악, 승무, 살풀이춤 등을 가르치며 호남춤의 음악적 기반과 춤사위의 다양성을 발전시켰다(장수지, 2020). 이는 각 권번이 지역성과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예술적 색채를 더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방 이후 권번의 해체는 전통춤의 전승과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광주국악원, 전주국악원, 군산국악원 등 국악원이 등장하며 전통춤의 명맥을 이어갔다. 국악원은 춤 사범을 중심으로 전승 활동을 체계화하며 호남춤의 예술적 다양성과 지역적 특색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전승 구조의 변화는 호남춤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교육과 전승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했다(장수지, 2020). 또한 국악원을 통한 전승은 기존 권번의 폐쇄적 전승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며 호남춤의 보존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전승과정에서 호남춤의 명인들이 등장하며 그 계보가 확립되었다. 이장선, 이창조, 신갑도 등은 춤사위와 장단을 체계화하며 호남춤의 기틀을 다졌고 이들의 교육을 받은 이매방, 조갑녀, 장금도, 최선, 한진옥 등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호남춤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예술적 해석을 더해 호남춤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매방의 승무와 살풀이춤은 민속춤의 섬세함과 절제미를 결합하여 호남춤의 미학을 정립했고 조갑녀와 장금도는 호남춤이 가진 즉흥성과 유연한 흐름을 강조하며 춤사위의 독창성을 발전시켰다.

또한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무형유산지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호남춤은 국가적 보호 아래 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매방의 승무와 살풀이춤, 최선의 호남살풀이춤, 김무철의 한량춤, 이길주의 호남산조춤 등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전승 체계는 호남춤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춰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즉 호남춤은 교방과 권번의 전통, 민속예술의 즉흥성과 서정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 춤사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예술적 기반은 이후 선입무와 같은 새로운 전통춤이 형성되고 전승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2. 현재 전승되고 있는 호남춤의 종류

1987년 이매방이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1990년에는 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최선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호남살풀이춤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김무철(한량춤), 이길주(호남산조춤), 김광숙(예기무), 문정근(전라삼현승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호남춤의 전승과 보존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구역별로 전통춤의 전승 형태를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6종목의 전통춤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진도와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악가무가 혼합된 춤이 전승되고 있다.

표 1. 호남지역 전승 춤 목록

지정방식	종목	보유자	연도
시, 도지정 무형유산	호남산조춤	이길주	2013
	호남살풀이춤	최선	1996
	한량춤	김무철	1998
	전라삼현승무	문정근	2014
	예기무	김광숙	2013
	수건춤	신관철	2017
국가지정 무형유산	살풀이춤	김정녀(명예보유자)	1990
	승무	채상목	1987
비지정	민살풀이춤		

호남춤의 각 종목은 개별적인 특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전체적인 호남춤의 흐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중 이매방류 승무는 공간 활용의 원형성과 음양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장삼을 활용한 춤사위가 돋보이며 원형적 무대 구성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마당이나 좁은 마루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 춤의 흐름은 장삼을 크게 한 번 뿌리면 그다음에는 작게 하고 호흡을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음양의 원리를 따른다. 감았다가 풀고 다시 감는 대칭적 움직임은 승무의 기본 원리를 형성하며 대삼과 소삼의 조화를 통해 강약과 완급이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룬다. 장삼을 위로 뿌렸다가 아래로 모으는 동작, 빠른 회전과 멈춤이 교차하는 춤사위는 정중동의 미학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주음악은 염불장단, 도드리장단, 타령장단, 잣은타령장단, 굿거리장단으로 구성되며 북을 치는 장단이 포함된 후 굿거리장단으로 마무리되는 형식을 취한다. 음악의 흐름 속에서 장삼을 감았다가 풀고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승무의 예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백경우, 2011). 결과적으로 이매방류 승무는 장삼을 활용한 공간미, 원형적 무대 구성, 음양 조화를 이루는 대삼과 소삼의 춤사위, 강약과 완급의 조화 속에서 정중동의 미학을 완성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엄숙하면서도 흥취가 살아 있는 이 춤은 전통춤의 깊이와 미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전통무용의 정수를 담아낸 춤으로 평가된다.

살풀이춤은 맺고 풀기를 반복하며 흐름을 이어가는 춤으로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특히 무속적 요소보다 기교와 멋, 흥을 강조한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사방춤의 구조를 가지며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미학적 동작이 완성되도록 구성된다. 이는 공간 활용에 대한 고려가 강한 특징으로 정형화된 무대 구성을 넘어서 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조한다. 또한 대삼과 소삼의 구분이 명확하여 크고 활달한 동작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이 조화를 이루며 음양의 대비와 함께 살풀이춤의 본질적인 맺고 풀기의 개념을 극대화한다. 수건은 짧은 형태를 띠어 정교한 손동작을 강조하며 춤사위는 원만한 연결과 유려한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즉흥성이 강해 공연마다 춤의 구성과 감정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무용수가 시·공간적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변주할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한다. 음악적으로는 시나위 장단을 기반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북, 장고, 징 등의 타악기와 대금, 해금, 피리 등의 관현악기가 편성되지만 요즘의 공연에서는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의 현악기와 여성 구음이 포함되기도 한다(백경우, 2011). 결론적으로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원형적 구조, 즉흥성이 강한 춤사위, 대삼과 소삼의 대비, 정교한 수건 사용을 통해 독창적 미학을 형성하며 감정을 음악과 일체화하여 표현하는 춤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남살풀이춤은 전주시 전동권번의 기생 이추월로부터 최선이 전수받아 보존해온 춤으로 현재는 최지원(전수교

육조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남도 살풀이장단, 자진굿거리장단, 느린 살풀이장단으로 구성되며 반주악기로는 전통적인 시나위 선율과 구음이 더해져 한의 정서를 깊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남살풀이춤은 일반적인 살풀이춤과 달리 바닥에 엎드려 떨어뜨린 수건을 잡고 어르는 춤사위가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동초수건춤의 춤사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살풀이춤 특유의 맺고 풀기의 개념 속에서도 독자적인 춤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수건을 활용한 춤사위에서는 뿌러지는 수건의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 폭의 난을 치는 듯한 형상을 연상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춤의 흐름 속에서 엇박과 정박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까치걸음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통해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경쾌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춤은 춤사위의 변화 폭이 크고 동작이 시원스러우며 상체의 동작이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특히 호남지방의 춤 특징인 깨끗한 선과 반듯한 자세에서 나오는 고고한 기품이 담겨 있으며 몸의 꼬임이 적고 담백한 춤사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최지원, 2021).

한량춤은 호남춤 중에서도 남성적인 기개와 자유로운 표현이 돋보이는 춤이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시원하게 펼쳐지는 춤사위와 절도 있는 보법이 특징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 권번의 정자선-정형인 계보를 따라 김조균, 김무철로 전승되었다. 춤의 흐름 속에서 맺고 풀기의 호흡을 극대화하며 즉흥적인 동선 활용을 통해 한량의 멋을 표현한다. 이 춤은 힘이 응축된 춤사위를 바탕으로 긴장과 이완을 조화롭게 결합해 내적 긴장감을 유지한다. 발디딤은 땅을 단단히 딛고 이후 하늘로 도약하는 움직임을 통해 천상지향(天上志向)의 미학을 구현하는데 이는 단순한 신분적 여유를 넘어서 인간이 지향하는 정신적 이상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한량춤의 기본 보법으로는 우족디딤 물입체, 우족 모듬 물입체, 지슴체, 세치기 등이 있으며 이는 장단과 조화를 이루며 춤사위의 강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족상응(手足相應)의 원리가 적용되어 오른발과 오른손, 왼발과 왼손이 함께 움직이면서 즉흥성과 감정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는다. 특히 대삼과 소삼의 구분이 명확하여 크고 힘찬 동작과 조심스럽고 섬세한 움직임이 교차하면서 춤의 깊이를 더한다. 이 춤은 즉흥적인 요소가 강해 춤을 추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춤사위의 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배혜국, 2009). 결과적으로 한량춤은 땅을 디디며 중심을 잡고 힘을 응축한 후 하늘로 도약하는 흐름을 가지며 정중동의 조화 속에서 내면의 기백과 자유로운 표현을 극대화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호남산조춤은 이추월-최선-이길주로 이어지는 전승 계보를 가지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허튼가락 장단을 기반으로 한다. 이 춤은 안정된 발디딤과 섬세한 손목 표현이 조화를 이루며 전라도 시나위 가락에 맞춰 춤꾼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춤사위를 보여준다.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사위 역시 감정을 몸에 실어 자연스럽게 변주되며 이는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이 아니라 정서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담아낸 춤사위로 평가된다. 호남산조춤의 음악은 남도 계면조 시나위 합주로 구성되며 각 악기가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펼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호남산조춤의 또 다른 특징은 조형적 무대구성과 미적 요소이다. 무대 상부에 위치한 달은 춤의 중요한 상징으로 인간 삶의 회환을 표현하며 정서적 깊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호남산조춤은 원과 나선, 태극형의 춤사위를 활용하여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의 원리를 표현한다. 이 선의 미학은 버선코, 치마의 굽이침, 저고리의 수평적 곡선, 끝동과 손끝 선, 몸의 동선에서 발견되며 춤이 단순한 신체 움직임을 넘어 우주적 기운과 생명력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예술적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족상응(手足相應)과 수족상반(手足相反)의 조화가 돋보이며 힘 있는 동작 뒤에는 반드시 힘을 풀어내는 동작이 이어지면서 한국춤의 정중동 원리가 잘 구현된다(김미진, 2011). 결과적으로 호남산조춤은 음악과 춤이 조화를 이루며 즉흥성과 감정의 흐름을 극대화하는 춤으로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 정서적 깊이, 공간미학, 선의 표현, 인간 삶의 감정을 춤으로 형상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예기무는 교방무의 한 갈래로 전북특별자치도 권번의 정자선-정형인 계보와 박금슬의 춤 전통을 이어받아 김광

속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홀부채춤, 입춤, 수건춤, 접시춤의 네 가지 춤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적 형식을 가지며 기녀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무구를 통해 표현한다. 춤은 손님의 숫자만큼 잔이 놓인 접시를 입에 물고 술을 권하는 동작으로 시작하며 이후 안주를 담은 접시를 나누는 동작을 거쳐 본격적인 춤으로 이어진다. 홀부채춤에서는 합죽선을 활용해 기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가 드러내는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입춤은 기녀의 삶을 몸짓으로 형상화하며, 수건춤에서는 유혹과 애절함을 동시에 표현한다. 수건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입으로 올리는 동작은 기녀의 신분적 제약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접시춤은 예기무의 백미로 두 개의 접시를 손바닥에 올려 돌리며 기계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때로는 소고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을 더한다. 예기무는 단순한 전통춤이 아니라 즉흥성과 연희적 요소가 강조되는 춤으로 연희 상황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춤사위가 가감되며 접시돌리기 등의 고난이도 기예가 포함된다. 시나위 장단, 굿거리 장단, 자진시나위 장단 등 다양한 장단이 사용되어 춤의 리듬 변화를 극대화한다(민혜미, 2013). 즉 예기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기녀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문화적 기록이자 춤과 연희, 기예가 결합된 독창적인 전통무용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현재도 그 형식과 예술성을 보존하며 계승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삼현승무는 정자선-박금슬-문정근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전승된 춤으로 전주 지방에서 전해지는 민간 삼현육각 중 농삼현을 반주로 사용한다. 피리(2), 대금(1), 해금(1), 좌고(1), 장고(1)로 구성된 전주삼현육각 반주에 맞추어 추어지며 파계승의 번뇌와 깨달음의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하여 내면의 갈등과 해탈을 표현하는 독특한 서사를 지닌다. 춤의 구성은 염불, 반염불, 굿거리, 북놀음, 늦은타령의 다섯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간의 번뇌를 해소하고 초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염불장단에서는 고요한 상태에서 기운을 모아 터트리는 방식으로 정중동(靜中動)의 미를 강조한다. 반염불에서는 북을 치며 감정을 다스리고, 굿거리에서는 맺고 풀기의 흐름 속에서 신명을 발산한다. 특히 북놀음(법고)은 불법을 널리 전하여 번뇌를 씻어내고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하며 몰아의 경지에 이르는 수련 과정이 춤사위를 통해 표현된다. 마지막 늦은타령에서는 번뇌를 털어내고 본연의 초연한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춤의 정점에서 극적인 정서적 해소를 이룬다. 전라삼현승무는 장삼사위를 활용하여 화려한 움직임을 강조하며 상하좌우의 자유로운 동선과 역동적인 북놀음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강약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빠른 동작과 정적인 순간이 조화를 이루어 호남춤 특유의 리드미컬한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호남인들이 지닌 섬세하면서도 당차고 자유분방한 춤사위가 살아있는 움직임으로 표현되며 춤과 음악, 서사가 결합된 독창적인 구조를 지닌다(문정근, 2010).

수건춤은 한성준-김보남-신관철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며 긴 수건을 사용하여 절제된 춤사위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른 호남춤과 달리 정형화된 움직임을 추구하며 담백하고 정제된 표현이 강조되며,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사용하면서 내면적 호흡과 단아한 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다른 전통춤과 마찬가지로 호흡과 표현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춤사위 하나하나에 내면적인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 신관철은 여성 무용수의 수건춤과 차별화되는 남성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며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강인한 기백과 섬세한 정서를 동시에 표현한다(김나경, 2021). 결과적으로 수건춤은 길고 유려한 선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교를 넘어 감정과 정서를 담아내는 춤으로서 정제된 미학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신관철류 수건춤은 단아함을 강조하면서도 남성적인 힘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조화를 이루며 절제미와 감성적 깊이를 극대화하는 춤으로 평가된다.

3. 호남춤의 특징

앞서 살펴본 호남춤의 다양한 종목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전체적인 호남춤의 흐름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호남춤의 특징을 종합하여 호남춤이 지닌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음악의 조화와 대삼·소삼의 대비

호남춤은 음악의 원리를 기반으로 춤사위가 조화롭게 구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대삼소삼(大衫小衫)의 강약 조절과 맺고 풀기의 호흡 기법을 통해 유연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삼·소삼은 큰 동작과 작은 동작을 교차하며 춤의 흐름을 조율하는 기법으로 호남춤의 즉흥성과 음악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 한량춤 등에서는 대삼과 소삼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크고 활달한 동작과 조심스럽고 섬세한 동작이 대조적으로 구성된다. 이는 춤사위의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춤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에서는 맺고 풀기의 원리를 통해 춤의 구조를 형성하며 춤사위 하나하나에 호흡이 스며들도록 구성된다. 이와 유사하게 한량춤에서도 긴장과 이완이 조화롭게 배합된 춤사위가 강조되며 땅을 딛고 하늘로 도약하는 흐름을 통해 천상지향(天上志向)의 미학을 구현한다.

또한 비정비팔(比丁比八) 발디딤 방식이 사용되어 정자(丁)나 팔자(八) 형태로 발을 내디디며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양우선(兩雨線) 동작을 통해 손과 발, 어깨의 교차적 움직임이 음악의 조화를 이루며 춤사위의 다양성을 극대화한다(성기숙, 2021). 이러한 음악의 조화는 호남춤이 정중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조절하는 춤임을 보여준다.

2. 즉흥성과 정형성의 균형

호남춤은 즉흥성과 정형성을 동시에 갖춘 춤이라는 점에서 독창적인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호남산조춤은 남도 계면조 시나위 합주에 맞춰 춤꾼의 개성이 반영된 즉흥적인 춤사위를 보여주며 장단의 흐름과 음악적 변주 속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이매방류 살풀이춤과 한량춤은 즉흥성이 강조되면서도 춤사위의 정형적인 틀이 존재하여 춤의 기본 구조가 유지된다.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매 공연마다 구성과 감정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즉흥적인 요소를 가지지만 대삼과 소삼의 대비, 수건 사용법 등의 정형적 원칙이 유지된다. 한량춤 또한 즉흥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수족상응(手足相應)의 원리를 따르며 춤사위의 정형적 구성을 갖춘다. 즉 춤꾼의 내면 정서와 순간적인 감정이 춤사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보이며 시공간에 따라 춤의 구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승무와 수건춤과 같이 정형성이 강조되는 춤에서는 규칙적인 움직임과 선의 흐름이 중요시된다. 이처럼 호남춤은 무용수의 개성과 즉흥적 표현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인 춤사위의 구조를 유지하는 균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호남춤은 이러한 즉흥성과 정형성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원시원한 동작과 활기찬 흐름을 유지한다. 이는 호남 지역 특유의 개방적이고 활달한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무용수가 음악의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동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표현의 자율성을 제공한다.

3. 음악과의 유기적 결합과 장단의 활용

호남춤은 전통음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사위가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호남산조춤, 이매방류 승무, 호남살풀이춤 등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호남산조춤은 남도 계면조 시나위 합주를 기본 음악으로 하며 각 악기가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펼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음악적 특징을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이매방류 승무는 염불장단, 도드리장단, 타령장단, 굿거리장단 등의 다양한 장단을 활용하여 춤의 흐름을 형성하며 장삼을 감았다가 풀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춤과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된다.

또한 호남살풀이춤과 호남산조춤에서는 장단의 변화를 활용하여 춤의 정서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굿거리장단

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이 강조되며 자진모리장단에서는 춤사위가 활발해지고 역동성이 극대화된다. 특히 호남춤의 하부지향적 호흡은 음악과의 결합 속에서 더욱 강조되며 땅을 누르듯 발디딤과 굴신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는 춤사위를 구현한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호남인의 삶과 정서를 반영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호남춤이 단순히 춤 자체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음악과 상호작용하며 춤의 정서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호남춤은 즉흥성과 정형성의 조화, 정중동의 원리, 음양의 대비 등 다양한 미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춤의 미학을 형성한다. 춤사위에서는 대삼과 소삼을 활용한 강약의 대비, 정박과 엇박의 조화, 발디딤과 도약을 통한 맺고 풀기의 구조가 나타나며 호흡을 통해 동작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호남춤은 단순한 전통춤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한국춤의 정수를 담아내는 예술적 표현 양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춤사위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 정서를 심미적으로 형상화하는 독창적인 미학을 구축하고 있다.

III. 선입무(仙立舞)의 특징 분석

1. 선입무(仙立舞)의 계보와 전승과정

선입무는 남성 무용가가 추는 '선비춤' 혹은 '한량무'를 바탕으로 발전한 춤으로 호남지역의 예술적 풍요로움을 담고 있는 전통춤 중 하나이다(유영수, 2024). 호남지역은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특유의 흥과 멋,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전통무용의 명맥을 이어왔으며 특히 호남지역의 무용은 단순한 몸짓을 넘어선 삶의 태도와 철학을 담고 있다.

선입무는 익산을 기반으로 활동한 남성 무용가 최태열-조남규-유영수의 계보를 통해 전승되어 왔다. 최태열은 전통춤의 원형을 탐구하며 독창적인 춤 형식을 창출하는 데 몰두하였고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선입무를 정립하였다. 그는 이매방, 은방초, 김백봉 등 한국 전통무용계의 거장들에게 사사하였으며 마한백제무용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무용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도 힘썼다. 전라도 특유의 즉흥적 멋과 흥을 바탕으로 한량무와 살풀이춤을 전수하며 전통무용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 기반을 구축한 그는 활발한 기개와 호탕한 춤사위 속에서도 섬세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함께 담아내는 독창적인 춤을 선보였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지니며 호남춤의 즉흥성과 구조적 요소를 반영하여 선입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남규는 최태열에게 사사하고 국립국악원 무용단에 입단해 전통춤과 정재무의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으로서 무용의 무대예술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남규는 최태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선입무의 전통적인 호남춤 호흡법과 발사위를 유지하면서도 허튼가락 장단이나 무용수의 기량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즉흥적 춤사위를 접목시켜 남성적인 기백과 활달함을 극대화하였으며 이는 선입무의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유영수는 선입무의 공연 형태와 구성에 변화를 주어 그 가능성을 넓혔다. 201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년 여간 독무 45회, 군무 34회의 공연을 통해 선입무를 선보이며 무대구성의 가변성을 실험해왔다. 공연 형식과 연출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선입무의 표현 방식을 확장했다. 특히 호남춤 특유의 호흡과 발사위를 중심으로 춤사위를 정리하고 무대 구성의 유동성을 탐구함으로써 선입무의 공연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선입무는 기존의 정형화된 춤 형식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대 환경과 공연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통춤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선입무의 전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현대 공연예술의 맥락에서

도 유의미한 가치로 조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듯 익산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선입무는 호남지역의 춤 문화와 깊이 맞닿아 있으며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왔다. 특히 농경문화와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호남지역 특유의 흥과 멋이 선입무의 정서적 근간을 이루며 춤사위와 장단 속에서 그 지역적 특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통적 무용 형식이자 즉흥성과 변주가 특징적인 이 춤은 전라도 무용가들의 전승 노력과 예술적 탐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2. 선입무(僊立舞)의 장단과 춤사위

선입무는 호남춤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창적인 춤사위를 통해 한국 전통무용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준다. 각 장단별로 구분된 선입무의 춤사위는 장단의 특성과 무용수의 내면적 정서를 반영하여 표현되며 부채와 도포의 활용, 공간 이동, 호흡의 변화 등을 통해 독자적인 미학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선입무의 주요 장단별 춤사위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유영수(2024)의 연구와 2023년 1월 18일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한 류무용단 20주년 기념공연에서 촬영된 것으로 해당 공연에서 선입무의 춤사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중모리장단의 춤사위: 그림의 미학과 절제된 표현

중모리장단은 선입무의 시작을 알리는 장단으로 그림 속에 담긴 절제와 여백의 미가 강조된다. 8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기편성은 거문고, 아쟁, 대금, 장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의 흐름은 무용수로 하여금 내면의 여유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며 이는 선입무가 지닌 기본 철학인 중용(中庸)의 미학을 담아낸다.

표 2. 중모리장단의 대표적인 춤사위

춤사위				
중모리장단				
설명	부채머뭍 사위는 선입무의 시작을 알리는 동작으로 2개 장단을 정적으로 집중력 있게 표현한다. 발의 형태는 비정비팔의 자세이다.	머뭍과 대조되는 부채 미는 사위는 대삼과 소삼 호흡으로 부채를 서서히 바깥으로 밀어낸다.	중모리장단의 가장 특징적 춤사위로 부채로 난을 그리듯 느리게 펼쳐내는 동작이다.	활개 사위는 부채를 편 상태로 도포자락을 뒤에서 잡아 올려 날린다. 중용을 표현한다.

(출처 : 유영수(2024). 한국 전통춤 선입무(僊立舞) 특성에 관한 연구 재구성)

부채머뭍 사위는 선입무의 시작을 알리는 동작으로 두 개의 장단을 정적인 긴장감 속에서 집중력 있게 표현한다. 부채를 몸 가까이에서 멈추며 내면의 집중과 호흡을 응축시키는 순간이며 이때 무용수의 내적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관객에게 전달된다. 발의 형태는 비정비팔(比丁比八)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다. 이 머뭍의 순간은 이후 전개될 동작의 대비를 극대화하며 선입무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대조되는 부채 미는 사위는 대삼과 소삼의 호흡을 활용하여 부채를 서서히 바깥으로 밀어내는 동작이다. 부채를 밀어내며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무용수의 내면적 정서를 점진적으

로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의 흐름은 감정의 점진적 고조를 반영하며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닌 무용수의 감정선이 서서히 드러나며 완성되는 예술적 과정이다.

다음 난을 그려 펼쳐내는 사위는 미적 표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동작은 서정적이며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며 춤꾼이 부채를 이용해 공중에 부드럽고 유려한 선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채의 끝을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과 함께 조절하며 회전과 각도 변화에 따라 선이 다채롭게 변화하는데 이는 전통회화에서 난을 그리는 필선(筆線)의 흐름과 유사한 미감을 형성한다. 특히 이 사위는 대삼과 소삼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춤사위 중 하나로 큰 호흡을 사용해 부채를 크게 펼치고 이후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소삼의 움직임으로 마무리된다.

활개 사위는 부채를 편 채 도포자락을 뒤에서 잡아 올려 날리는 동작으로 중용을 상징하는 동시에 절제와 해방의 경계를 오가며 춤사위의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춤사위들은 느낌 속에서도 호흡과 동작의 섬세한 변화를 통해 정중동의 미학을 구현한다.

2) 굿거리장단의 춤사위: 내면의 미와 풍류정신의 발현

굿거리장단에서는 내면적 미의식을 강조하는 춤사위들이 등장한다. 남도 시나위장단의 총 66장단으로 구성하며 악기편성은 쟁과리, 거문고, 아쟁, 대금, 장구, 징, 피리로 이루어진다. 가장 큰 음악적 특징으로는 태평소가 아닌 피리를 사용한다는 점이며 43장단에서 52장단까지 거문고 독주가 포함된다(유영수, 2024). 이 장단에서의 춤은 단순한 외적 움직임을 넘어서 무용수의 내면적 감정과 미학을 표출하는 과정이다.

표 3. 굿거리장단의 대표적인 춤사위

춤사위				
굿거리장단				
설명	평사위는 양팔을 수평으로 올려든 기본 춤사위로 인위적이지 않은 무위적 자세를 보이는 동작이다.	수직 평사위는 한 팔은 수평으로 다른 팔은 위로 들어 ㄱ자 모습을 취하는 동작으로 발놀음은 내면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뛰는 활개사위는 양팔로 도포를 날리면서 뛰어 오르는 동작이다. 남성적 도약미가 돋보인다.	꼬리사위는 양팔을 뒤로 도포 속으로 집어넣고 추켜올리는 동작으로 풍류미의 표현한다.
굿거리장단				
설명	몰입 사위는 네 박자 동안의 흐름을 모두 활용하여 한 동작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부채노름사위는 부채를 들고 좌우새를 하며 발디딤의 변화를 통해 춤사위의 호흡과 박자감을 강조한다.	부채 날개사위는 부채를 펼쳐 날개처럼 활용하며 한발로 공중에서 도약하는 역동적인 동작이다.	거문고 여운사위는 43장단부터 52장단까지 거문고 독주 구간에서 수행되는 춤사위이다.

(출처 : 유영수(2024). 한국 전통춤 선입무(簾立舞) 특성에 관한 연구 재구성)

대표적인 춤사위 중 하나인 평사위는 양팔을 수평으로 올려드는 기본 동작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적 태도로 인위적인 장식 없이 순수한 내면을 드러낸다. 춤사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호흡의 흐름을 따라 동작이 이어지며 몸의 중심이 낮게 유지되어 춤의 안정감을 더한다.

수직평사위는 한 팔을 수평으로 다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며 내면의 정서적 고요함과 발놀음의 섬세함을 강조한다. 수족상응(手足相應)의 원리에 따라 손과 발, 상체와 하체가 긴밀하게 연결되며 몸의 축을 세우는 균형감이 강조된다. 발놀음은 섬세하면서도 정교하게 진행되며 느리고 부드러운 호흡과 함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뛰는 활개사위는 양팔로 도포를 날리며 도약하는 동작으로 남성적 기개와 도약미가 강조된다. 하늘을 향해 몸을 던지는 듯한 강렬한 움직임을 통해 풍류정신과 자연에 대한 심미적 태도를 표현하며 힘찬 도약과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듯 퍼져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발디딤은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도약과 착지 사이의 완급 조절을 통해 춤의 흐름을 이어간다.

꼬리사위는 도포 속으로 양팔을 넣고 도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유유자적한 풍류미를 강조하는 춤사위이다. 이 동작은 단순히 도포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용수가 스스로를 감싸듯이 움직임을 조율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흐름을 형성한다. 도포를 들어 올릴 때의 속도와 호흡의 변화는 춤의 정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느림 속에서 고요한 멋과 여유로움을 표현한다.

몰입 사위는 네 박자 동안 한 동작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면서도 춤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단순한 리듬 표현을 넘어 춤사위의 집중도를 높이고 내면적 몰입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위는 호흡과 흐름의 연속성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호남춤의 맥락에서 강조되는 정중동의 원리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동작이 네 박자에 걸쳐 전개되면서도 춤사위의 균형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적인 순간에서 동적인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구조를 갖춘다.

부채노름사위는 발디딤과 부채의 움직임이 긴밀하게 조화되며 박자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 유연하게 변화한다. 특히 발디딤이 2박 1보-1박 1보-종종걸음의 형태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춤사위에 점진적인 리듬감을 부여하면서도 무용수의 기량과 해석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는 선입무의 정형성과 즉흥성을 나타내는 구간이라 할 수 있으며 장단의 흐름을 기반으로 박자감이 살아나는 특징을 보인다.

부채 날개사위는 선입무의 비상하는 듯한 움직임과 기개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동작이며 무용수는 부채를 펼친 팔을 옆으로 뻗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중심을 잡은채 순간적으로 뛰며 이동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는 무용수의 기량과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남성적인 기개와 동시에 우아한 흐름을 극대화하며 호흡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거문고 여운사위는 선입무만이 가진 독창적인 표현 영역으로 악기 합주에서 거문고 독주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악기의 다채로운 울림이 사라지고 거문고 선율만이 남아 춤사위 또한 기존의 흐름과 차별화된 정적인 긴장감과 내면적 표현이 강조된다. 머뭇사위, 느린 회선사위, 여밈과 펼침사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문고의 독주에 맞추어 춤사위를 절제하고 여백의 미를 살리며 내면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3) 자진모리장단의 춤사위: 즉흥성과 자유로움의 미학

자진모리장단에서는 춤의 즉흥성이 극대화된다. 바라로 시작하는 총 32장단 길이의 자진모리장단이며 악기 편성은 거문고, 아쟁, 대금, 바라, 장구, 징, 태평소로 구성된다(유영수, 2024). 자진모리장단의 춤사위는 정형화된 틀을 유지하면서도 무용수의 내면적 정서와 장단의 자극에 따라 자유롭게 변주된다.

표 4. 자진모리장단의 대표적인 춤사위

장단	춤사위			
자진모리장단				
설명	부채여밈 사위는 자진모리장단의 첫머리로 부채를 어깨에 걸치고 좌우새를 하며 내면적 흥을 표현한다. 이때 발의 디딤은 대삼과 소삼이 교차되며 걸어 나간다.	부채뺨는 사위는 부채여밈 후에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관객을 향해 부채를 뺨어 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채머리든 사위는 왼팔은 수평으로 오른팔은 머리 위로 부채를 펴 들어 올린다. 활발한 춤사위로 자유의 극치를 표현한다.	발사위는 양손으로 도포 자락을 잡고 도취된 흥을 발재간으로 섬세하게 표현해 흥을 돋우는 동작이다.
자진모리장단				
설명	까치걸음 사위는 빠른 발디딤과 호흡의 연결을 통해 흥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연풍대는 자진모리장단의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으로 원형의 동선을 그리며 4회 도약하는 동작이다.		

(출처 : 유영수(2024). 한국 전통춤 선입무(簾立舞) 특성에 관한 연구 재구성)

부채여밈 사위는 자진모리 장단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부채를 어깨에 걸치고 좌우새를 활용하여 무용수의 내면적 흥과 정서를 담아내는 춤사위이다. 이 동작에서는 발의 디딤이 대삼과 소삼을 교차하며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춤사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채를 여미는 순간의 절제된 호흡과 발 디딤의 완급 조절을 통해 감정을 응축시키며 이후의 전개를 위한 정서적 몰입을 극대화한다.

부채뺨는 사위는 부채를 관객을 향해 내미는 동작으로 부채를 앞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호흡과 박자감이 강조되며 공간을 확장하는 느낌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위는 춤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팔 동작이 아니라 춤꾼이 관객과 소통하며 내면적 흥과 열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표현 방식으로 기능한다.

부채머리든 사위는 부채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며 활발한 동작을 강조하는 춤사위로 자유와 해방의 극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동작이다. 왼팔은 수평을 유지하고 오른팔은 머리 위로 부채를 활짝 펼쳐 들어 올리는 형태로 진행되며 춤의 역동성과 공간감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발사위는 도포 자락을 잡고 발재간을 섬세하게 구사하는 동작으로 단순한 디딤이 아니라 도포의 움직임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진행되어 무용수의 감정이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도포 자락을 활용하는 방식은 춤의 역동성과 시각적 미감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발디딤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춤사위의 리듬감을 더욱 강조한다. 특히 발놀음과 상체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춤의 내적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까치걸음 사위는 자진모리 장단의 주요 발사위로 빠른 호흡과 디딤의 연결을 통해 흥을 고조시킨다. 이는 춤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동시에 경쾌한 이동감과 역동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동작이다. 6박까지 까치걸음 사위로 동작을 몰아간 후 7박과 8박에서 동작이 마무리 되어 다음 구간으로 연결된다. 빠른장단에 맞춰 발을 가볍게 이동하며 상체는 부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어간다. 이는 무용수가 춤의 흐름을 다시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맺고 풀기의 미학과도 연결된다. 즉 빠른 디딤새와 흥겨운 흐름 속에서 춤의 긴장과 해소를 조화롭게 이루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풍대는 흥이 절정에 이르러 무용수가 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춤사위를 펼친다. 이 장단에서는 무용수의 내면적 흥과 자유가 춤을 통해 폭발적으로 표출되며 관객과의 교감을 완성한다. 원형의 동선을 따라 무대 공간을 크게 활용하며 4회의 도약 동작을 통해 춤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무용수가 회전과 도약을 결합하여 원의 동선을 그리면서 춤사위를 전개하고, 무대 전체를 활용하므로 공간감을 보여준다.

4) 뒷굿거리장단의 춤사위: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내적 정서의 극대화

뒷굿거리장단에서는 우리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내적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8장단 안에서 상·하체의 균형과 섬세한 기교가 조화를 이루며 선입무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표 5. 뒷굿거리장단의 대표적인 춤사위

장단	춤사위			
뒷굿거리장단				
설명	부채머리든 사위는 왼팔은 수평으로 오른팔은 부채를 펴 머리 위로 서서히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날아가듯 하수 앞까지 이동한다.	앞은 사위는 양손을 활개를 펴듯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상하체의 균형과 내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너울 사위는 평사위에서 부채든 손을 갖 높이까지 서서히 들며 너울거리는 동작이다. 무위적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부채머뭍 사위는 중모리 시작 지점인 상수 위쪽에서 마무리 된다. 우리춤의 참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출처 : 유영수(2024). 한국 전통춤 선입무(仙立舞) 특성에 관한 연구 재구성)

부채머리든 사위는 부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무용수가 무대의 하수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동작으로 마치 바람을 타듯 유유히 흐르는 선을 강조한다. 왼팔은 수평을 유지하며 균형감을 형성하며 오른팔은 부채를 펼쳐 머리 위로 서서히 올리면서 시선을 부채 끝을 따라 이동시킨다. 이 사위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며 춤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며 춤이 절정에서 마무리로 향하는 흐름을 암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앞은 사위는 무릎을 굽히며 앉아 양손을 활개 펴듯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몸의 중심을 낮추며 내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상·하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깊은 호흡과 함께 내면의 정서적 깊이를 표현하는 요소가 강조된다.

너울 사위는 부채를 들고 갖 높이까지 서서히 올리며 동작을 통해 무위적 표현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춤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동작이지만 단순한 정지의 개념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여운을 남기는 춤사위이다. 또한 선의 미학이 극대화되며 춤이 서서히 사그라지는 듯한 효과를 주어 마무리 과정에서의 깊은 정서를 전달한다.

부채머뭉 사위는 부채를 몸 가까이에 둔 채 정지하는 동작으로 중모리 시작 지점인 상수 위쪽에서 마무리되는 형태를 가진다. 이 사위는 춤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과정 속에서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표 6>은 앞서 살펴본 장단별 대표적 춤사위를 정리한 표이다.

표 6. 선입무(仙立舞)의 각 장단별 대표적인 춤사위

장단	춤의 흐름	주요 춤사위	감정표현	음악
중모리장단	느린 흐름 속에서 정적인 순간과 동적인 순간이 대비됨.	부채머뭉 사위, 부채머는 사위, 난을 그려 펼쳐내는 사위, 활개 사위	절제된 움직임과 여백의미를 강조. 내면적 집중과 정중동의 미학을 형성	느린 장단이 춤의 긴장감을 높이며, 부채의 움직임과 장단이 맞물려 점진적 전개를 유도
굿거리장단	즉흥성과 정형성이 조화를 이루며, 춤의 흐름이 점차 확장됨.	평사위, 수직평사위, 부채노름 사위, 뛰는 활개 사위, 꼬리사위, 물입 사위, 부채노름사위, 부채날개 사위, 거문고 여운사위	호흡과 박자의 조화를 이루며 춤의 내면적 감정을 표출. 공간 활용이 넓어지며 춤의 해방감이 강조됨.	다양한 악기의 조화 속에서 춤사위가 자연스럽게 변주되며, 거문고 독주(43~52장단)에서 내면적 집중이 강조됨.
자진모리장단	빠른 박자 속에서 춤의 즉흥성이 극대화됨.	부채머뭉 사위, 부채뺨는 사위, 부채머리든 사위, 발사위, 까치걸음 사위, 연풍대 사위	춤의 역동성과 공간 활용이 최대로 확장됨. 관객과의 교감이 강조되며 춤의 에너지가 극대화됨.	빠른 장단과 어우러지며 춤이 더욱 박진감 있게 진행됨.
뒷굿거리장단	감정이 정리되며 춤이 마무리되는 과정	부채머리든 사위, 앞은 사위, 너울 사위, 부채머뭉 사위	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듯 마무리되며 여운을 남기는 형식	장단이 점차 찾아들며 춤과 음악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됨.

선입무의 춤사위는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라 각 장단에서 무용수의 내면적 정서와 미적 감각이 표현되는 예술적 과정이다. 느림과 빠름, 정적과 동적의 대비 속에서 춤사위는 무용수의 내면을 드러내며 선입무의 미학적 완성을 이룬다. 각 장단별 춤사위는 무용수의 내면적 감정, 호흡, 장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호남춤의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선입무만의 예술적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V. 호남춤의 맥락에서 본 선입무(仙立舞)

선입무는 호남춤의 흐름 속에서 발전한 춤으로 절제된 기품과 활달한 표현력을 동시에 담아내는 춤이다. 이는 호남춤이 가진 예술적 특징과 미학적 원리를 계승하고 변주하며 독자적인 무대 형식을 구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선입무가 호남춤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분석하며 호남춤의 주요 요소가 선입무의 춤사위와 형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선입무(仙立舞)의 전승과 구조적 특징

선입무는 호남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계승하며 발전한 춤으로 호남춤의 춤사위와 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선입무의 계보는 익산을 중심으로 최태열-조남규-유영수로 이어지며 각 전승자의 해석과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고 발전하였다. 최태열은 살풀이춤, 한량춤, 승무 등의 요소를 통합하며 남성적 기백과 절제된 미학이 공존하는 선입무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그의 제자인 조남규는 춤사위를 정리하고 부채를 활용한 표현 기법을 추가하여 선입무의 독창성을 확립했다. 이후 유영수는 선입무의 공연 형식과 장단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독무와

군무 형식으로 무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입무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호남춤의 핵심적인 원리와 춤사위가 선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대삼과 소삼의 대비를 통한 강약 조절, 맺고 풀기의 원리를 활용한 춤사위의 구성, 즉흥성 등의 요소가 선입무에서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통적인 호남춤이 가진 구조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남성 춤 특유의 기개와 강한 에너지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발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보적 흐름 속에서 선입무는 호남춤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무용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이 선입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음양의 조화와 대삼·소삼의 대비를 활용한 춤사위의 구성이다. 이는 호남춤에서 강조되는 기본적인 원리로 춤의 흐름 속에서 크고 활달한 동작과 섬세하고 조용한 동작이 대조적으로 배치되며 춤의 흐름을 형성한다. 선입무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난을 그려 펼쳐내는 사위는 부채를 크게 펼쳐 공간을 확장한 뒤 점차 작아지는 움직임으로 수렴되며 대삼과 소삼의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강약의 조절을 통해 춤의 감정선이 조율된다. 또한 부채여밈 사위는 부채를 어깨에 걸치고 좌우새를 표현하며 대삼과 소삼을 교차하여 발 디딤을 조절하는 춤사위로 점진적으로 흥을 고조시키며 춤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크고 힘찬 동작과 절제된 움직임이 균형을 이루어 호남춤이 강조하는 음양의 조화와 강약의 대비를 반영한 선입무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입무는 즉흥성과 정형성의 조화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호남춤은 즉흥적인 변주를 수용하는 동시에 춤의 정형적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선입무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굿거리장단의 부채노름 사위는 박자의 변화에 따라 발디딤과 부채의 움직임이 유연하게 조절되며 이는 무용수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진모리장단에서 진행되는 연풍대 사위 또한 즉흥적인 흐름 속에서 춤의 자유로운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선입무는 호남춤이 가진 음악적 구조를 지닌다. 선입무의 장단은 중모리 → 굿거리 → 자진모리 → 뒷굿거리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이는 호남춤이 가진 음악적 요소와 장단 활용 방식이 반영된 구조이다. 특히 굿거리장단에서 43장단부터 52장단까지 거문고 독주가 포함되는 구간은 선입무만의 독창적인 요소로 춤사위의 감정적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을 넘어 춤과 음악이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이 강조되며 호남춤이 지닌 음악적 유기성과 감정의 점진적 해소라는 특징을 더욱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선입무는 호남춤의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춤사위와 구조를 구축한 춤이라 할 수 있다. 대삼·소삼을 활용한 강약의 대비, 정중동의 원리, 즉흥성과 정형성의 균형, 음악과의 유기적 결합 등의 요소는 선입무가 호남춤의 맥락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무구 활용과 공간 확장의 개념을 통해 전통춤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선입무(僊立舞)의 미학적 특성과 예술적 독자성

선입무는 호남춤의 맥락을 계승하면서도 고유한 미학적 특징을 형성하였다. 춤사위의 구성, 장단의 활용, 공간의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선입무는 단순히 기존 전통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춤의 본질을 기반으로 하여 독창적인 춤의 구조를 형성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선입무의 미학적 특징은 정중동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공간적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입무의 초반 부인 중모리 장단에서는 정적인 긴장감을 강조하는 부채머뭍 사위가 도입된 후 부채 미는 사위와 난을 그려 펼쳐내는 사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간을 확장하며 춤의 흐름을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신체 확장이 아니라 무용수가 공간을 점진적으로 점유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특히 굿거리장단의 몰입 사위는 정중동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춤사위로 네 박자 동안 한 동작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면서도 춤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한 리듬 표현을 넘어 춤사위의 집중도를 높이고 내면적 몰입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 동작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춤의 흐름과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이는 정적인 순간에서 동적인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구조를 갖춘다.

둘째, 선입무는 호남춤에서 볼 수 있는 발디딤과 춤사위의 섬세한 조절을 통해 내면적 정서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굿거리장단에서는 부채노름 사위를 통해 발디딤과 부채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춤사위가 박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변주된다. 또한 부채 날개사위는 부채의 활발한 움직임과 도약 동작을 결합하여 정서적 몰입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춤은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을 넘어 내면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특히 굿거리장단의 거문고 여운사위(43~52장단)에서는 악기의 울림과 춤사위가 하나가 되며 무용수는 호흡과 몸의 흐름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셋째, 선입무는 장단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방감을 드러내는 춤사위를 강조한다. 자진모리장단에서는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춤사위들이 배치되며, 특히 부채여밈 사위에서 내면적 흥이 점진적으로 응축되고 까치결음 사위는 빠른 박자 속에서 경쾌한 이동감을 강조하며 춤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 과정은 연풍대로 이어지며 무용수는 공간을 원형으로 활용하여 도약과 회전을 통해 춤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후 뒷굿거리 장단에서는 감정의 해소 과정이 이루어지며 너울 사위와 부채머리든 사위가 마무리의 흐름을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한 연출을 형성한다. 이는 선입무가 단순한 기교적 표현이 아닌 춤의 구조적 완결성과 감정의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춤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선입무는 호남춤의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나 독자적인 춤사위를 구축하면서 전통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입무가 단순히 호남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춤의 미학적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전통적 맥락 속에서 발전한 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선입무는 호남춤의 원리를 바탕으로 춤사위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춤으로 기존 전통춤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무대 환경과 춤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선입무는 호남춤의 근본적인 정신과 기법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해온 전통춤으로 자리 잡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호남춤의 맥락 속에서 선입무의 전승과 특징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선입무가 호남춤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떠한 춤사위를 형성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호남춤의 역사적 배경과 전승과정을 살펴보고 호남춤이 형성된 문화적, 예술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호남춤은 음양의 조화와 대삼·소삼의 대비, 즉흥성과 정형성의 조화, 음악과의 유기적 결합 등의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원리는 선입무의 춤사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선입무의 전승계보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선입무는 최태열을 시작으로 조남규, 유영수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정립되었으며 각 전승자들의 해석과 연구를 거치며 보다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계보적 흐름 속에서 선입무는 호남춤의 원리를 기반으로 춤사위를 구성하면서도 부채를 활용한 표현 기법과 독창적인 장단 운용을 통해 차별성을 형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입무의 장단과 춤사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호남춤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뒷굿거리 장단을 따라 춤이 전개되며 장단의 변화에 따른 춤사위의 흐름, 강약 조절, 정서적 전개 방식이 호남춤의 전통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양의 조화와 대삼·소삼의 대비를 활용한 춤사위, 몰입 사위를 통한 정서적 응축, 부채 노름사위와 같은 즉흥적인 움직임을 통한 춤의 확

장성 등의 요소가 선입무에서 중요한 미학적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선입무는 호남춤의 미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춤사위를 구축한 전통춤이다. 선입무는 호남춤의 핵심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현대적 공연 형식과 무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전승과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선입무의 전승과정과 춤사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춤의 예술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호남춤 연구들은 주로 살풀이춤, 승무, 한량춤, 산조춤 등 개별 춤의 계보와 특징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선입무가 호남춤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전통춤이라는 점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입무가 호남춤의 원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춤임을 논증하고 춤사위와 장단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선입무의 전승 계보와 춤사위 분석이 특정 전승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선입무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타 지역에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전승 방식과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승자들의 춤 해석과 전승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선입무의 전승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선입무와 관련된 기록물의 부족으로 일부 춤사위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었다. 기존 전통춤 연구에서는 춤의 기록화 및 무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입무는 아직 이러한 체계적 기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선입무의 주요 춤사위를 무보화하여 정리하고 동작별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입무의 전승 및 활용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전통춤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나경(2021).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2011). 호남산조춤 무보와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청우(2021). 호남춤 계보와 특성 연구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정근(2010). 전라삼현승무 복원의 의의 및 미학적 특성.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혜미(2013). 교방춤 중 예기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혜국(2009). 전주 한량무 형성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 금파 김조균 선생의 춤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우(2011). 이매방(李梅芳)춤의 양식적 특성으로 본 역학(易學)적 분석 : 〈승무〉〈살풀이춤〉〈입춤〉〈검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숙(2021). 영·호남춤 전승의 역사와 예술사적 의의. 한국전통공연예술학, 6(-), 169-214.
- 유영수(2024). 한국 전통춤 선입무(儼立舞)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41(2), 93-105.
- 최지원(2002). 호남 살풀이춤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원(2021). 류별 살풀이춤에 나타난 미적 특이성에 관한 고찰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170-181.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onipmu in the Context of Honam Dance

Youngsoo Yoo* Jeonju Daesaseupcheong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dance movements of Seonipmu within the context of Honam dance and to examine how Seonipmu is connected to Honam dance while identifying its unique artistic characteristics. Korean traditional dance has develop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particular, Honam dance has formed a distinctive artistic identity based on principles such as the harmony of improvisation and formalization, the contrast between yin and yang, and the utilization of Daesam and Sosam dance movements. However, academic research on Seonipmu remains insufficient, and little has been explored regarding how this dance inherits the traditional elements of Honam dance while establishing its own unique movements.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transmission lineage and characteristics of Seonipmu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ance movement analysis, while also investigating its relationship with Honam dance. The findings confirm that Seonipmu inherits the traditional elements of Honam dance while establishing its unique movements. Specifically, elements such as the contrast between Daesam and Sosam, the principle of tension and release (Maeggo Puli-gi), and a structure that allows for improvisational variation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onam dance. At the same time, the incorporation of fan techniques and spatial expansion in Seonipmu demonstrates its adaptability to modern performance forma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transmission process and dance movements of Seonipmu, thereby establishing its position as a traditional dance that evolved within the Honam dance framework. However, as the transmission of Seonipmu has been primarily centered around specific regions and individuals, future research should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transmission methods among various successor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notation (Mubo) work to systematically document Seonipmu's dance movement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oreography among various successors in greater detail.

Key words : Honam Dance, Seonipmu, Traditional dance, Traditional genealogy

논문투고일: 2025.02.28

논문심사일: 2025.03.26

심사완료일: 2025.04.09

* Director, Jeonju Daesaseupcheong